

中國의 初級中學 교과서에 수록된 古典詩歌 分析

— 臺灣 國民中學 《國文》篇

金貞熙*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國文》 교과서 수록 시의 注釋과 翻譯
- II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대만의 國民中學 《國文》은 총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3년 6학기 동안에 사용된다.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교과서는 中華民國74년 4월 교육부에서 수정 공포한 '國民中學國文課程標準'에 근거하여 편집된 것으로 民國78년부터 2차에 걸쳐 개편되어 民國84년(1995) 8월 출판된 것이다. 대만의 《國文》 교과서는 학생들의 국어 학습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독해와 작문능력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윤리 도덕과 민주주의 및 과학정신을 양성하여 애국심을 고양하고 중화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 따라서 중학 국어교과서는 언어 훈련, 정신 陶冶 및 문학작품 감상 등의 가치를 갖춘 작품에 착안한 모범문장이 수록되었으며, 중학교 학생의 학습 능력과 심리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국문 교과서는 총 20개

* 漢陽女子大學 中國語科 教授

1) 國民中學 《國文》의 <編輯大意> 1쪽 참조. 각 권마다 <목차>앞에 실려있다. 단 《國文》 6冊 중 제1책은 民國75年8月 正式本初版, 民國78年8月 改編本初版, 民國84年8月 改編本七版, 제2책은 民國76年1月 正式本初版, 民國79年1月 改編本初版, 民國85年1月 改編本七版 등으로 표기된 것과 같이 각 책마다 연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과(단 6책은 18과)로 구성되었으며, 매 권마다 그 중간에 ‘언어상식’(一~三)과 ‘연습’(一~三) 항목이 편성되어 있다. ‘언어상식’에는 예를 들면 표점부호의 사용, 자전 및 사전의 사용, 연설훈련 등(제1책)이나 중국문자소개(象形·指事) 등(제2책)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본문 가운데 산문은 필독과 選讀의 2종의 구분이 있는데 별표로 표기한 4편의 선독 본문은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보충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과의 모범 문장 뒤에는 문장에 대한 ‘해제’(題解), ‘作者’, ‘注釋’ 및 ‘문제와 토론’ 등이 있어 본문을 학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대시는 매 권 제3과에 1수씩 총 6수가 수록되어 있는데,²⁾ 이에 반해 고전시가는 국문 교과서의 각 권마다 전반부(제5과)와 후반부(제15과)에 한과씩 안배되어 2과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학년별로 수록된 고전시가는 다음과 같다.

- 第一冊 五言絕句選, 七言絕句選
- 第二冊 五言律詩選, 七言律詩選
- 第三冊 古體詩選(一), 古體詩選(二)
- 第四冊 樂府歌行選(一), 樂府歌行選(二)
- 第五冊 詞選(一), 詞選(二)
- 第六冊 元曲選(一), 元曲選(二)

대만의 초급중학 국문에는 고전시가 각 권마다 4수씩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악부시만은 장편시 2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22수가 실려있다. 각과의 시가 뒤에도 그에 대한 해제·작자·주석·토론 등이 있어 자전이나 사전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의 중학 국문은 고전시가 이와 같이 각 학년마다 시의 형식에 따라 안배되어 있으나, 대륙의 중학 《語文》은 매 권마다 단원별로 ‘每周一首’라는 7개의 항목을 두어 고전시가를 자주 소개한 외에도 때로는 ‘시사감상’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기도 하여 중학

2) 대만의 중학 국문 매권 3과에 수록된 현대시는 제1책, <夏夜>(楊喚, 1930~1954, 遼寧省 興城縣 사람); 제2책, <負荷>(吳勝雄, 1944~, 臺灣省 彰化縣 사람); 제3책, <只要我們有根>(王蓉芷, 1928~, 江蘇省 漣水縣 사람); 제4책, <一枚銅幣>(余光中, 1928~, 福建省 永春縣 사람); 제5책, <一隻白鳥>(王志健, 1924~, 山西省 五寨縣 사람); 제6책, <竹>(陳啓佑, 1953~, 臺灣省 嘉義縣 사람) 등이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제1책 제1과에 <國歌歌詞>(孫文)가 실려있으나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3년 동안 90여 수를 이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중국의 국어 교과서는 이와 같이 대만해협 양안이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서로 다른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전혀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대만해협 양안의 교과서 비교에 앞서 본고에서는 먼저 대만의 초급중학 국문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國文》 교과서 수록 시의 注釋과 翻譯

一. 國民中學 《國文》 第一冊

1. 五言絕句選

(一) 登鶴雀樓 — 王之渙

白日依山盡.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黃河入海流.	황하는 바다로 흘러가니
欲窮千里目.	천리 밖 먼 곳을 보려거든
更上一層樓.	다시 한 층 더 올라가야지.

○《全唐詩》에서 選錄. 이 시는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본 경물과 감상을 묘사하여 鶴雀樓의 장관을 부각시켰다. ○王之渙(武後 垂拱四年, 688-玄宗 天寶元年, 742): 당나라 并州(지금의 山西省 太原縣) 사람. 변세의 풍광을 묘사한 시에 뛰어났으나 전해지는 시가 적다. ○鶴雀樓(관작루): 지금의 山西省 永濟縣 서남쪽에 위치했던 3층의 누각으로 黃河에 면해 있었는데, 鶴雀(새의 이름으로 鶴鵲으로도 씀)이 그곳에서 서식하여 鶴雀樓라 부른 것으로 전한다. ○盡: 사라지다. ○窮: 극도에 이르다. 가장 먼 곳의 풍경을 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3) 九年制義務教育課本, 《語文》七年級, 八年級, 九年級 各 第一學期, 第二學期 總 6권, 上海教育出版社, 1995.6.

(二) 塞下曲 — 盧綸

月黑雁飛高,	깜깜한 밤 기러기 높이 나는데
單于夜遁逃。	흉노는 밤을 틈타 달아나네.
欲將輕騎逐,	날랜 기병 이끌고 뒤쫓으려니
大雪滿弓刀。	활과 칼엔 눈이 가득 쌓여있네.

○《全唐詩》에서 選錄. 이 시는 국경요새에 대설이 내린 밤 선우가 대패하여 달아나자 장군이 병사를 거느리고 추격하려는 정경을 묘사하였다. ○盧綸(天寶八年, 749-德宗 貞元十六年, 800): 字가 允言. 당나라 河中的 蒲(지금의 山西省 永濟縣 서쪽)사람. ○塞下曲(새하곡): 일종의 군가. 塞, 변경의 수비하는 곳. ○月黑: 달빛이 없는 밤. ○單于(선우): 고대 흉노의 수령. 여기서는 당을 침공한 이민족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遁逃: 달아나다. ○將: 인솔하다. ○輕騎: 행장이 간편하고 날랜 騎兵.

2. 七言絕句選

(一)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 李白

故人西辭黃鶴樓,	친구는 서쪽 황학루를 떠나
煙花三月下揚州。	꽃이 만발한 양주로 떠나네.
孤帆遠影碧空盡,	돛단배 그림자는 창공으로 사라지고
惟見長江天際流。	오직 강물만이 하늘가로 흐르네.

○《李太白詩文集》에서 選錄. 이 시의 제목은 黃鶴樓에서 맹호연을 전송하는 것을 뜻한다. 작자는 경물 묘사를 빌어 먼 곳으로 가는 벗을 전송하는 이별의 슬픔을 토로하였다. ○李白(武後 長安元年, 701-肅宗 寶應元年, 762): 자는 太白, 호는 青蓮居士. 본적은 隴西 成紀(지금의 甘肅省 泰安縣 북쪽)이나 후에 西蜀 綿州 昌明縣(지금의 四川省 彰明縣)으로 옮겼음. 이백은 천재시인으로 사람됨과 작품이 호방 표일하며 자연 솔직하다. 후세에 그를 '詩仙'이라 칭하였다. 저서로 《李太白詩文集》이 있다. ○黃鶴樓: 지금의 湖北省 武昌縣 黃鶴山 서북쪽의 黃鶴磯에 위치. ○孟浩

然: 당나라 襄陽(지금의 湖北省 襄陽縣)사람. ○之: 가다, 도착하다. ○廣陵: 揚州(지금의 江蘇省 江都縣)의 옛 명칭. ○故人: 오랜 친구. ○西辭黃鶴樓: 서쪽의 黃鶴樓에서 헤어져 동쪽 揚州로 가는 것을 뜻한다. ○煙花: 봄에 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안개처럼 자욱한 것을 형용한다. ○惟: 단지.

(二) 楓橋夜泊 — 張繼

月落烏啼霜滿天,	달 지고 까마귀 우는 가을 저녁
江楓漁火對愁眠.	단풍아래서 고깃배불빛에 잠못드는데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 종소리
夜半鍾聲到客船.	밤중에 객선 까지 들려오네.

○《全唐詩》에서 選錄. 이 시의 제목은 밤에 배가 楓橋 기슭에 정박한 것을 뜻한다. 나그네가 배 안에서 밤을 지내는 정경을 묘사하였다. ○張繼: 당나라 襄州(지금의 湖北省 襄陽縣) 사람. 생졸년 未詳. 天寶 연간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楓橋: 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吳縣 閶門 서쪽 교외에 위치하며 寒山寺에서 가깝다. ○江楓: 강가의 단풍나무. ○漁火: 漁船의 등불. ○姑蘇: 江蘇省 吳縣(蘇州)의 옛 명칭. ○寒山寺: 楓橋의 동쪽에 위치. ○夜半鍾聲: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심야에 종을 치지 않지만 당시 한산사에서는 심야에 종을 치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二. 國民中學 《國文》 第二冊

1. 吾言律詩選

(一) 過故人莊 — 孟浩然

故人具雞黍,	친구는 닭 잡고 기장밥 지어놓고
邀我至田家.	시골집에 나를 초대하니
綠樹村邊合,	싱그런 나무가 마을을 빙 둘러 싸고

青山郭外斜.	청산은 성곽 너머로 늘어서 있네.
開軒面場圃.	창문 열어 채마밭 마주하고서
把酒話桑麻.	술잔 들고 농사일 이야기하네
待到重陽日.	중양절 되거들랑
還來就菊花.	다시 국화 보러 와야겠네.

○《孟浩然集》중에서 選錄. 농촌의 풍경과 벗의 우의를 묘사하였다. ○孟浩然(武後 永昌元年, 689-玄宗 開元二十八年, 740): 당나라 襄州 襄陽(지금의 湖北省 襄陽縣) 사람. 산수와 전원 풍경을 묘사하는데 뛰어났으며, 王維와 더불어 ‘王孟’으로 칭한다. 저서로 《孟浩然集》이 있다. ○過故人莊: 過, 방문하다. 故人, 오랜친구. 莊, 촌락. ○具: 준비하다. ○合: 둘러싸다. ○斜: 횡렬. ○開軒面場圃: 軒, 창문. 場圃, 봄에는 채소를 심고 가을에는 곡식을 말리는 장소. 창문을 열고 밖의 동산을 마주하고 있음을 말한다. ○把酒: 술잔을 들다. ○重陽: 음력 9월 9일을 말하여 ‘重九’라고도 한다. ○還: 다시. ○就: 여기서는 ‘친근하다’는 뜻이다.

(二) 觀獵 — 王維

風勁角弓鳴.	바람 거세어 강궁이 우니
將軍獵渭城.	장군은 위성으로 사냥을 나서네.
草枯鷹眼疾.	초목 메말라 매의 눈 예리하고
雪盡馬蹄輕.	눈녹은 들판에 말굽소리 가볍다.
忽過新豐市.	눈 깜짝할 사이 신평 거리 지나
還歸細柳營.	급방 세류 병영으로 돌아와
迴看射鵰處.	수리 쏘았던 곳 돌아보니
千里暮雲平.	노을 천리에 드리웠네.

○《王右丞集》중에서 選錄. 이 시는 장군의 사냥 정경을 묘사하였다. ○王維(武後 長安元年, 701-肅宗 上元二年, 761): 字는 摩詰로 당 太原 祁(지금의 山西省 祁縣) 사람. 초기에 지은 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웅혼하고 호매한 기개가 있으나, 중년 이후에는 청아 한담한 풍격으로 전환하여 의경이 悠遠하다. 蘇軾은 그를 “詩中有畫, 畫中有詩”라고 칭하였다. 저서로 《王右丞集》이 있다. ○勁: 강하다. ○角

弓: 짐승의 뿔로 장식한 활. ○渭城: 秦代의 咸陽城은 漢代에 이르러 渭城으로 개칭하였다. 渭水 북쪽에 위치하며 지금의 西安市 서북. ○疾: '예리하다'는 뜻. ○新豐市: 市, 市街. 新豐은 지금의 陝西省 臨潼縣 동북. ○還: 즉시. '旋'의 뜻과 통한다. ○細柳營: 紀律이 엄격한 군대를 가리킨다. 細柳, 지금의 陝西省 長安縣으로 漢代의 名將인 周亞夫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

2. 七言律詩選

(一) 聞官軍收河南河北 — 杜甫

劍外忽傳收薊北,	검문이남에서 계주의 수복 소식 갑자기 전해
初聞涕淚滿衣裳。	듣고 처음엔 눈물로 옷이 다 젖었다.
卻看妻子愁何在,	처자식을 뒤돌아보니 이미 근심 사라져
漫卷詩書喜欲狂。	시서 챙기며 너무도 기뻐네.
白日放歌須縱酒,	대낮부터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며
青春作伴好還鄉。	봄을 벗삼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卽從巴峽穿巫峽,	곧장 파협을 따라 무협을 지나면
便下襄陽向洛陽。	바로 양양으로 내려가 낙양을 향하리.

○《杜工部集》중에서 選錄. 작자는 진란으로 온갖 시련을 겪은 후 승전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놀랍고도 기쁜 심정을 그렸다. ○杜甫(玄宗 先天元年, 712-代宗 大曆五年, 770): 자가 子美. 본적은 杜陵(지금의 陝西省 長安縣 동남)이나 후에 湖北省 襄陽縣으로 옮겼다가 다시 河南省 鞏縣으로 옮겼다. 후세에 그를 '詩聖'으로 존칭하였다. 작품은 사회를 반영하고 인생을 표현하며 절실한 체험으로 정감이 진지하다. 저서로 《杜工部集》이 있다. ○聞官軍收河南河北: 官軍, 정부의 군대. 收, 수복. 河南河北, 현재 河南省 洛陽 부근 일대와 河北省 북부를 가리키는데, 당시 이 지역은 安祿山과 史思明의 근거지였다. ○劍外: 劍門 이남 지역. 劍, 劍門으로 四川省 북부에 위치. ○薊北: 지금의 河北省 북부. 薊, 옛 薊州. ○卻看妻子愁何在: 卻看, 뒤돌아보다. 愁何在, 이미 근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漫卷: 제멋대로 정리하다. 卷, '捲'字와 통한다. ○白日: (역자주) 혹은 '白首' 혹은 '白髮'로도 쓴다. ○放

歌: 마음껏 노래하다. ○青春: 여기서는 아름다운 봄날을 가리킨다. ○巴峽: 長江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湖北省 巴東縣 서쪽에 이르면 巴山이 강쪽으로 우뚝 솟아 있어 巴峽이라 부른다. ○巫峽: 지금의 四川省 巫山縣 동쪽.

(二) 暮春 - 陸遊

數間茅屋鏡湖濱.	경호 호수가 두어 칸 초가집에
萬卷藏書不救貧.	만권서 있어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고
燕去燕來還過日.	제비가 떠났다가 돌아오매 또 세월이 흐르고
花開花落卽經春.	꽃들이 피었다가 지니 봄도 이제 가려하네.
開編喜見平生友.	책을 펼치면 옛사람 만나는 것 즐겁다가도
照水驚非曩歲人.	물에 비친 내 모습 이전과 달라 놀라네.
自笑滅胡心尙在.	우스워라 오랑캐 무찌르려는 하는 마음 여전히
憑高慷慨欲忘身.	격양되어 높은데 올라 조국에 몸바치기 바라네.

○《劍南詩稿》중에서 選錄. 작자는 한거하며 독서로 소일하다가 비록 유수 같은 세월 속에 이미 늙어버린 것을 알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웅대한 포부만은 여전히 있다. ○陸游(徽宗 宣和七年, 1125~寧宗 嘉定二年, 1209): 자는 務觀, 호는 放翁. 송대 越州 山陰(지금의 浙江省 紹興縣)사람. 그의 散文·詩·詞가 모두 아름다웠으며, 시에 특히 뛰어나서 작품중에 민생에 대한 관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자주 표현하여 '애국시인'이라는 호칭이 있다. 저서로 《劍南詩稿》·《渭南文集》·《放翁詞》 등이 있다. ○暮春: 음력 3월을 가리킨다. ○鏡湖: 호수이름으로 浙江省 紹興縣 남쪽에 위치하며, 鑑湖라고도 한다. 육유는 孝宗 乾道二年(1166) 42세부터 경호 북쪽 기슭에서 기거하였다. ○卽經春: 봄이 곧 끝나려하다. 卽, 장차. ○開編: 서책을 펼치다. ○平生友: 옛 사람. 平生, 一生. ○曩歲(낭세): 옛날. 曩, 從前. ○胡: 여기서는 금나라 사람을 가리킨다. ○憑高: 여기서는 登高를 가리킨다. ○慷慨: 의기가 격양되다. ○欲忘身: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칠 수 있기를 희망하다.

三. 國民中學 《國文》 第三冊

1. 古體詩選(一)

(一) 庭中有奇樹 — 佚名

庭中有奇樹.	뜨락에 아름다운 꽃나무
綠葉發華滋.	싱그런 잎사귀에 꽃들이 피어나네.
攀條折其榮.	가지 당겨 꽃을 꺾어
將以遺所思.	그리운 이에게 보내려니
馨香盈懷袖.	향기는 옷소매에 가득하여도
路遠莫致之.	길 멀어 전할 길 없네.
此物何足貴.	이 꽃이 어찌 보낼만 하리 오만
但感別經時.	다만 이별하던 때가 사무쳐오네.

○이 시는 昭明 《文選》중에서 선록한 漢代 古詩十九首 중의 1수로 작자의 멀리 떨어져 있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묘사하였다. ○奇樹: 아름다운 樹木. ○發華滋: 꽃이 무성한 것을 말한다. 華, '花'의 古字. 滋, 무성한 모양. ○攀(반): 부여잡다. ○榮: 꽃. ○遺所思: 그리운 사람에게 증정한다는 뜻. ○馨(형): 향기. ○致: 배달하다. ○貢: 헌상하다.

(二) 歸園田居 — 陶淵明

種豆南山下.	남산 아래 콩을 심었으나
草盛豆苗稀.	잡초 무성해 콩 싹은 드문드문.
晨興理荒穢.	새벽부터 일어나 잡초를 매고
帶月荷鋤歸.	달밤에야 호미 매고 돌아오니
道狹草木長.	길은 좁고 초목 우거져
夕露沾我衣.	밤이슬에 옷깃이 젖는구나.
衣沾不足惜.	옷 젖는 것 아까울 것 없으니
但使願無違.	그저 농사 잘되기만 바랄 뿐.

○이 시는 《陶淵明集》중에서 선록하였다. 작자가 관직을 사퇴하고 은거한 뒤의 전원생활의 노동과 그 감상을 서술하였다. ○陶淵明(晉 哀帝 興寧三年, 365- 宋文帝 元嘉四年, 427): 일명 潛. 자는 元亮. 東晉시기 潯陽 柴桑(지금의 江西省 九江縣 서남) 사람. 학문이 깊어 문장에 뛰어났으며, 소년시기부터 일찍이 당시 부패한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벼슬을 원치 않았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彭澤(지금의 江西省 湖口縣 동쪽)수를 한 차례 지냈으나, 80여 일만에 사직하였다. 이후 줄곧 柴桑에 은거하며 농사와 학문을 병행하는 빈곤한 생활을 하였다. 死後에 靖節先生으로 불리었으며, 고대 저명한 시인중 한 사람으로 저서로 《陶淵明集》이 있다. ○南山: 廬山을 가리킨다. ○晨興理荒穢: 일찍 일어나 김을 맨다는 뜻. 晨興, 일찍 일어나다. 穢, 밭의 잡초. ○荷: 어깨에 메다. ○但: …하기만 하면. ○(역자주) 이 시는 <歸園田居>五首 중 第三首에 속한다.

2. 古體詩選(二)

(一) 登幽州臺歌 — 陳子昂

前不見古人.	앞으론 옛 사람을 보지 못했고
後不見來者.	뒤로는 올 사람 보지 못하네.
念天地之悠悠.	망망한 우주를 생각하다
獨愴然而涕下.	홀로 구슬피 눈물 흘리네.

○《全唐詩》에서 선록한 이 시는 작자가 정치적 실의 후 幽州臺에 올랐을 때의 망망한 우주에 대한 감개를 표현한 것이다. ○陳子昂(高宗 龍朔元年, 661-武後 長安二年, 702): 자는 伯玉. 당대 梓州 射洪(지금의 四川省 射洪縣) 사람. 웅혼하고 호매한 그의 작품은 당시의 새로운 풍격을 개척하였다. 저서로 《陳伯玉文集》이 있다. ○幽州: 당대 州名으로 주재지는 지금의 北京市이다. ○悠悠: 무궁무진한 모양. ○愴然: 슬퍼하는 모양. ○涕(체): 눈물.

(二) 慈烏夜啼 — 白居易

慈烏失其母。	까마귀가 어미를 잃자
啞啞吐哀音。	까악 까악 구슬픈 소리를 토하네.
晝夜不飛去。	밤낮으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經年守故林。	해가 다가도록 옛 숲을 지키네.
夜夜夜半啼。	밤이면 밤마다 밤중에 우니
聞者爲沾襟。	듣는 이마다 옷깃을 적시네.
聲中如告訴。	울음소리는 말하는 듯 하네
未盡返哺心。	다하지 못한 효도의 마음을.
百鳥豈無母。	새마다 어찌 어미가 없겠는가만
爾獨哀怨深?	너만이 홀로 이리도 애달픈가.
應是母慈重。	틀림없이 어미의 자애로운 사랑이
使爾悲不任。	네가 서러워 못 견디게 하는 것이리.
昔有吳起者。	옛날 吳起라는 사람은
母歿喪不臨。	모친상에도 오지 않았으니
嗟哉斯徒輩。	아. 이 같은 무리들은
其心不如禽!	그 마음 금수만도 못하네.
慈烏復慈烏。	까마귀여, 까마귀여
鳥中之曾參。	새들 중의 증삼이로다.

○《白氏長慶集》중에서 선록한 이 시는 어미를 그리며 밤에 우는 까마귀를 빌어 부모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풍자하였다. ○白居易(代宗 大曆七年, 772-武宗 會昌六年, 846): 그의 시는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적으로 사회를 주로 묘사하여 당시 시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며 인정을 나타내는 효용이 있다. 중당의 저명한 시인으로 저서로 《白氏長慶集》이 있다. ○啞啞(아아): 까마귀 우는 소리. ○經年: 일년 내내. ○沾襟(침금): 눈물이 옷깃을 적시다. 襟, '衿'字와 같다. 상의의 앞섶. ○反哺(반포): 까마귀가 어려서는 어미 새가 먹이를 먹여주지만, 성장하면 도리어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 새를 먹이므로 '反哺'라고 한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파생어이다. ○爾: 너. ○不任: 할 수 없다. 任, 맡다. ○吳起: 전국시대 名將. 그는 공명을 추구하기 위해 모친이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지 않자, 그의 스승인 曾申(曾參의 아들)이 이를 알고 그와의 내왕을 단절하였다.

○沒: 사망. ○司徒輩: 이런 부류의 사람. 徒·輩 모두 부류의 뜻. ○曾參(중삼): 자가 子輿로 춘추시대魯나라 사람. 孔子의 제자.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극하여 당시 유명한 효자였다.

四. 國民中學 《國文》 第四冊

1. 樂府歌行選(一)

四時讀書樂 — 翁森

一.

山光照檻水繞廊,	산빛은 난간을 비추고 수로는 회랑을 감도니
舞雩歸咏春風香。	바람쐬고 돌아올 때 봄 내음이 향기롭네.
好鳥枝頭亦朋友,	나뭇가지의 새들도 벗이 되고
落花水面皆文章。	물위의 낙화는 모두 글이 되었네.
蹉跎莫遣韶光老,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지 어니
人生惟有讀書好。	인생에 오로지 독서만이 좋을 시구.
讀書之樂樂何如?	독서의 즐거움이 어떠한가면
綠滿窗前草不除。	창가에 잡초가 가득해도 뽑지 않는다네.

○4수로 구성된 7언 가사인 이 시는 악부시의 歌行體에 속하며, 《一瓢稿》중에서 선록하였다. ○翁森: 자는 秀卿, 호는 一瓢로 원대 仙居(지금의 浙江省 仙居縣) 사람이다. 은거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저작에 《一瓢稿》가 있다. ○舞雩(무우): 본래 기우제 의식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을 가리키며, 轉義되어 더위를 피해 서늘한 바람을 쐬는 '乘涼'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蹉跎莫遣韶光老: 이 구절은 제때 노력하여 청춘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 蹉跎(차타),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 遣, 사용하다는 뜻. 韶光(소광),春光. 여기서는 청춘시기를 가리킨다.

二.

新竹壓檐桑四圍，
小齋幽敞明朱曦。
晝長吟罷蟬鳴樹，
夜深燼落螢入幃。
北窗高臥羲皇侶，
只因素稔讀書趣。
讀書之樂樂無窮，
瑤琴一曲來薰風。

대나무 처마를 뒤덮고 뽕나무 사방을 에워싸니
그윽한 작은 서재에 밝은 햇살이 비추네.
대낮에 시 읊조리고 나면 나무에선 매미가 울고
깊은 밤 재 떨어지면 반디가 휘장 안에 드네.
북창 아래 한가로이 누워 유유자적하니
다만 독서의 즐거움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독서의 지극한 즐거움 끝이 없으니
거문고 한 자락에 남풍이 불어오네.

○壓檐(압침): 높고 큰 대나무가 처마를 뒤덮은 것을 형용한다. 檐, '簷(침)자'와 통한다. ○小齋幽敞明朱曦: 고요한 작은 서재안에 찬란한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말한다. 小齋(소재), 작은 서재. 幽敞(유창), 환경이 고요하고 광선이 충분하다. 朱曦(주희), 붉은 햇빛. ○燼(신): 타고남은 찌꺼기. ○北窗高臥羲皇侶: 북창아래 한가로이 누워서 복희씨 시대 사람들처럼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羲皇, 상고시대 제왕 伏羲氏로 그 시대 사람들은 무사태평하고 사리사욕이 없어 세속적 다툼이 없었다고 전한다. 여기서는 독서의 한적한 즐거움에 비유하였다. 侶, 벗. ○稔(임): 깨닫다. ○瑤琴(요금): 아름다운 옥으로 標記한 거문고. 瑤, 美玉. ○薰風: 여름에 부는 남풍. 薰, 온화하다.

三.

昨夜庭前葉有聲，
籬豆花開蟋蟀鳴。
不覺商意滿林薄，
蕭然萬籟涵虛清。
近床賴有短檠在，
對此讀書功更倍。
讀書之樂樂陶陶，
起弄明月霜天高。

어젯밤 뜰에 나뭇잎 떨어지더니
이두화 피고 귀뚜라미 울더라.
어느덧 가을 정취 숲에 가득하니
처량한 온갖 소리마다 가을 기운 품었네.
침상 가까이 작은 등잔 있으니
독서하기 더없이 좋구나.
독서의 즐거움 그지없이
밝은 달과 높은 하늘을 노래하네.

○商意: 가을의 기분. 商은 宮商角徵羽 5음중 하나로 商은 성조가 처량하여 옛 사람들은 가을로 비유하였다. ○林薄: 초목이 무성한 곳. 수목이 무성한 곳은 '林'

이라고 하며, 잡초가 무성한 것을 ‘薄’이라고 한다. ○蕭然(소연): 가을의 처량한 기운. ○萬籟: 각종 소리. 籟(퇴),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虛淸: 가을날 맑고 상쾌하며 고요한 기운. ○繁(경): 본래는 등잔걸이를 뜻하나, 여기서는 작은 등잔을 가리킨다. ○弄: 여기서는 감상하다는 뜻.

四.

木落水盡千崖枯,	나뭇잎 떨어지고 물 메말라 골짜기도 시들어
迥然吾亦見眞吾。	아득히 나 또한 나의 천성을 깨닫노라.
坐對韋編燈動壁,	책과 마주 앉으니 등잔불이 벽에서 흔들거리고
高歌夜半雪壓爐。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니 밤눈이 오두막을 덮는다.
地爐茶鼎烹活火,	봉당 화로의 불꽃 위엔 차가 끓고
四壁圖書中有我。	사방을 에워싼 책 속엔 내가 있네.
讀書之樂何處尋?	독서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
數點梅花天地心。	매화 속에서 만물의 이치를 헤아리네.

○迥然(형연): 아득한 모양. ○眞吾: 眞我. 불교 용어로, 천부적인 본성을 의미한다. ○韋編: 서적. 韋, 무두질한 가죽. 고대 서적은 대부분 竹簡이나 木簡에 썼으므로 가죽으로 꿰어서 책을 만들었다. ○活火: 불꽃이 있는 숯불. ○數點梅花天地心: 추운 겨울에는 몇 송이 매화만이 피어 천지만물의 이치를 헤아려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독서하는 이는 마땅히 천지자연이 만물을 양육하는 이치를 터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樂府歌行選(二)

木蘭詩 — 佚名

唧唧復唧唧,	덜그럭 덜그럭
木蘭當戶織。	목란이 방에서 베를 짜는데
不聞機杼聲,	베틀소리 들리지 않고
唯聞女嘆息。	여아의 긴 한숨소리만 들리네.
問女何所思?	무슨 근심이 있는가고 묻고

問女何所憶?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네.
女亦無所思,	“저는 아무 근심도 없어요.
女亦無所憶.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昨夜見軍帖,	어젯밤 징집 통지서를 보았는데
可汗大點兵:	임금이 병사를 징발한대요.
軍書十二卷,	징병 문서가 열두 권인데
卷卷有爺名.	권마다 아버지 이름이 들어있어요.
阿爺無大兒,	아버지는 장남이 없고
木蘭無長兄,	목란은 오라비가 없으니
願爲市鞍馬,	말이며 안장을 사서
從此替爺征.	지금 아버지대신 전쟁터로 가야겠어요.”

○이 시는 북조시기 민가로 후세 문인들의 운색을 거쳐 완성되었다. 여성 영웅인 木蘭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從軍한 고사를 서술하고 있다. ○唧唧(졸졸): 베틀 소리. ○機杼: 機, 여기서는 베를 짜는 기계를 의미. 杼(저), 베틀에서 씨실을 지탱하는 기구. ○軍帖: 징병 문서. 帖(첩), 문서. ○可汗(가한): 고대 西域과 북방의 각 국에서 그들의 군왕에 대한 호칭. ○市: 買, 사다.

東市買駿馬,	동쪽 시장에서 준마 사고
西市買鞍韉,	서쪽 시장에서 안장 사고
南市買轡頭,	남쪽 시장에서 고삐 사고
北市買長鞭,	북쪽 시장에서 채찍 샀네.
朝辭爺孃去,	아침에 부모님께 작별하고
暮宿黃河邊.	저녁엔 황하가에 머무르니
不聞爺孃喚女聲,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 들리지 않고
但聞黃河流水鳴濺濺.	황하의 물소리만 철철철 들려오네.
旦辭黃河去,	아침에 황하를 떠나서
暮至黑山頭;	저녁에 흑산에 이르니
不聞爺孃喚女聲,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 들리지 않고
但聞燕山胡騎鳴啾啾.	연산의 오랑캐 말울음 소리만 들리네.

○鞍韉: 말 위의 방석. 韉(천), 안장 아래의 깔개. ○轡頭: 채갈. 轡(비), 말을

통제하는 고삐. ○黑山: 산 이름, 河北省에 위치. ○燕山: 河北省 薊縣 북에서 遼西의 燕山山脈 까지 이어지는 산. ○濺濺(천천): 물 흐르는 소리. ○啾啾: 말 울음소리를 형용하는 소리.

萬里赴戎機,	만리 떨어진 전선으로 달려
關山度若飛,	관산을 나는 듯 지나네.
朔氣傳金柝,	찬바람에 딱따기 소리
寒光照鐵衣,	차가운 달빛은 갑옷을 비추네.
將軍百戰死,	장군들 수 없이 싸우다 죽고
壯士十年歸.	장사는 십 년만에 돌아왔네.

○戎機: 기밀한 군사적 행동 혹은 상급자가 지시하는 군사적 방침. ○朔氣傳金柝:朔氣, 북방의 찬 기운.柝(탁), 야경꾼이 치는 딱따기.○鐵衣: 고대 병사들이 입던 철갑옷.

歸來見天子,	돌아와 임금을 알현하니
天子坐明堂.	임금은 명당에 좌정하고
策勳十二轉,	공로를 열두 급으로 기록하고
賞賜百千強	한없는 상을 내리시며
可汗問所欲,	임금이 원하는 바를 물으시니
木蘭不用尙書郎.	“목란은 상서랑도 싫고요
願借明駝千里足,	천리를 달릴 낙타를 빌어서
送兒還故鄉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明堂: 고대 천자가 제후나 과거시험 급제자를 접견하는 곳. ○策勳十二轉: 策勳, 공을 기록하다. 戰功이나 관직이 일등급 오르는 것을 轉이라고 한다. 十二轉, 지극히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 ○強: (역자주)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 ○尙書郎: 관직명. 궁정에서 문서를 주관하는 관리. ○明駝: 힘센 낙타. ○兒: 여가서는 木蘭의 自稱.

爺孃聞女來,	부모님 여식 온다는 말 듣고
--------	-----------------

出郭相扶將。
阿姊聞妹來，
當戶理紅妝。
小弟聞姊來，
磨刀霍霍向豬羊。
開我東閣門，
坐我西閣床。
脫我戰時袍，
着我舊時裳。
當窗理雲鬢，
對鏡貼花黃。
出門看火伴，
火伴皆驚惶。
同行十二年，
不知木蘭是女郎。

성밖까지 나와 마중하시고
언니는 동생 온다는 말 듣고
집안에서 붉게 단장하고
동생은 누나 온다는 말 듣고
속속 칼 갈아 돼지와 양 잡네.
동쪽 누각 문을 열고
서쪽 누각 침상에 앉아
전투복을 벗어놓고
옛날 치마로 갈아입고서
창가에서 머리 손질하고
거울 앞에서 아미에 꽃을 붙이네.
문을 나서 전우들 보니
전우들 모두 놀라며
“십이 년을 같이 지냈건만
목란이 여잔 줄은 몰랐었네.”

○扶將: 부축하다. 여기서는 나가서 맞이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將, 지지하다. ○紅妝: 고대 여자들의 화장은 대부분 붉은 분을 썼으므로 紅妝이라고 함. ○霍霍(곽곽): 칼을 급히 가는 소리. ○雲鬢: 먹구름처럼 까만 머리. 鬢(빈), 얼굴 양 옆에 자란 귀밑머리. ○花黃: 고대 여자들이 이마에 붙이던 화장품. ○火伴: 즉 伙伴. 동료.

雄兔脚撲朔，
雌兔眼迷離。
兩兔傍地走，
安能辨我是雄雌？

수토끼 걸음도 느릴 때 있고
암토끼 눈도 흐릴 때 있으니
두 마리 토끼가 나란히 가는데
어찌 암수를 분별할 수 있으리오.

○撲朔: 토끼가 달리는 모양. ○迷離: 토끼 눈이 흐릿한 모양. ○傍地走: 두 토끼가 나란히 간다는 뜻. 傍(방), 가까이. ○安: 어찌.

五. 國民中學 《國文》 第五冊

1. 詞選(一)

(一) 南鄉子 — 李珣

乘彩舫,	화려한 배타고
過蓮塘,	연못을 지나니
棹歌驚起睡鴛鴦,	노젓는 소리에 원앙이 놀라 깨네.
遊女帶花偎伴笑,	소녀들 꽃 들고 웃으며
爭窈窕,	아름다움을 다투고
競折團荷遮晚照。	서로 연잎 꺾어 저녁해 가리네.

○이 사는 《花間集》중에서 선록하였는데, 남방의 풍광 및 남방 소녀의 천진하고 생동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南鄉子>는 詞調名이다. ○李珣: 자는 德潤. 조상은 이란 사람이었으나 장사하러 중국에 왔다가 적을 옮겨 梓州(지금의 四川省 三臺縣) 사람이 되었다. 李珣은 제5대이나 생졸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유명한 詞人으로 저서로 《瓊瑤集》이 있다. ○彩舫: 화려하게 장식한 배. 舫(방), 배. ○棹歌: 배를 저을 때 부르는 노래. 棹(도), '櫂(도)로도 쓴다. ○鴛鴦: 못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일종. ○遊女: 놀이 나온 여자. ○偎(외): 친밀하게 가까이하다. ○窈窕: 아름다운 자태. ○團荷: 연꽃잎의 둥근 형태를 가리키는 말. ○晚照: 석양.

(二) 相見歡 — 朱敦儒

金陵城上西樓,	금릉성 서루에 올라
倚清秋,	가을 풍경을 바라보니
萬里夕陽垂地,	석양은 지평선너머로 지고
大江流,	장강은 유유히 흘러가네.
中原亂,	중원이 어지러워
簪纓散,	귀인들 흩어졌으니

幾時收?	언제나 조국 수복 가능할런지.
試倩悲風吹淚,	청컨대 가을바람아 눈물을
過揚州.	양주너머에 뿌려다오.

○이 시는 《樵歌》중에서 선록하였다. 작자가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였다. <相見歡>는 詞調名이다. ○朱敦儒(神宗 元豐元年, 1078-孝宗 淳熙元年, 1174): 자는 希真. 의지와 품행이 고결하였으며 詩詞에 뛰어났다. 저서로 《樵歌》가 있다. ○金陵: 남경의 옛 이름. ○倚清秋: 성루에 기대어 맑은 가을 풍경을 감상하다. ○夕陽垂地: 저녁 햇살이 대지를 감싸는 것을 가리킨다. ○中原亂: 靖康년에 일어난 변란을 가리킨다. 송 欽宗 靖康2년(1127)에 흠종과 그의 부친 徽宗은 금나라로 압송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이를 '靖康의 亂'이라고 일컫는다. ○簪纓散: 고위 관리와 귀족들이 각지로 흩어진 것을 말한다. 簪, 머리에 꽂아 두발을 고정시키는 비녀. 纓, 갓끈. 簪纓, 본래는 고위관리와 귀인의 갓 장식이었으나 후에 귀인을 뜻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幾時收: 언제나 조국을 수복할 수 있겠는가. ○試倩: 잠시 청컨대. 試, 잠시. 倩, 여기서는 청하다(請)의 의미. ○過揚州: 揚州는 지금의 江蘇省 경내에 있으므로 남송시기엔 북쪽 변방의 요충지였다. 揚州만 지나면 곧 中原이다.

2. 詞選(二)

(一) 西江月 — 辛棄疾

— 夜行黃沙道中 — 밤에 황사로 가는 길에서

明月別枝驚鵲,	달빛에 나뭇가지에 깃든 까치 놀라고
清風半夜鳴蟬.	바람에 쓰르라미 밤중에 쓰룩쓰룩 울고
稻花香裏說豐年,	벼꽃 향기 속에 풍년을 얘기하니
聽取蛙聲一片.	한바탕 개구리 울음소리 들린다.
七八個星天外,	별은 듬성듬성 하늘에 떠있고
兩三點雨山前.	빗방울 두세 방울 앞산에 뿌리는데
舊時茅店社林邊,	서낭당 옆 그 옛날 주막이

路轉溪橋忽見

다리 건너 길을 휘도니 문득 나타나네.

○이 사는 《稼軒長短句》중에서 선록하였다. 농촌의 평안하고 고요한 풍경과 작자가 밤길을 갈 때의 한적한 심정을 서술하였다. <西江月>은 詞調名이다. ○辛棄疾(高宗 紹興十年, 1140-寧宗 開禧三年, 1207): 자는 幼安, 스스로 稼軒居士로 칭함. 송대 歷城(지금의 山東省 濟南市) 사람. 그의 작품은 웅혼하고 호매하면서도 청신하면서도 우아한 풍격을 겸비하고 있으며, 남송의 저명한 愛國詞人이다. 소식과 더불어 '蘇辛'으로 병칭한다. 저서로 《稼軒長短句》가 있다. ○黃沙: 지명으로 江西省 饒縣에 위치. ○茄店: 락포로 엮은 지붕의 상점. 茄(묘), '茅(모)자'의 뜻과 통한다. ○社林: 지신제 장소 주위에 나무가 숲을 이룬 것을 뜻한다. 고대에 土神을 제사지내기 위해 흙으로 쌓은 낮은 누대를 '社'라고 하다.

(二) 滿江紅 — 岳飛

怒髮衝冠,	성난 머리칼 관 위로 치솟고
憑闌處,	난간에 기대서니
瀟瀟雨歇,	세찬 비바람도 그치네.
抬望眼,	눈 치켜 뜨고 멀리 바라보다
仰天長嘯,	하늘 우러러 길게 포효하는
壯懷激烈,	장사의 가슴에 피가 끓는다.
三十功名塵與土,	삼십년 공명은 티끌 같은데
八千里路雲和月,	팔천리 전선엔 구름과 달빛 뿐.
莫等閒,	등한히 하지 말지니
白了少年頭,	검은머리 어느새 희어지고
空悲切,	부질없이 슬픔만 간절할진저.
靖康恥,	정강의 치욕
猶未雪;	아직도 씻지 못했으니
臣子恨,	신하된 자의 애끓는 한
何時滅!	언제나 없어질까.
駕長車踏破賀蘭山缺,	전차를 몰아 하란산을 돌파해
壯志飢餐胡虜肉,	굳센 마음 주리면 적의 살을 먹고
笑談渴飲匈奴血。	웃다가 목타면 적의 피를 마시리.

待從頭,	진두에 서서
收拾舊山河,	빼앗긴 산하 수복하여
朝天闕.	천자를 알현하리라.

○이 사는 《岳鄂王文集》에서 선록하였다. 작자는 이로써 그의 국토를 수복하고자 하는 결심을 표현하였다. <滿江紅>은 詞調名이다. ○岳飛(徽宗 崇寧二年, 1103-高宗 紹興十一年, 1141): 자는 鵬舉. 송나라 때 금나라에 항거한 名將. 저서로 《岳鄂王文集》이 있다. ○莫等閒: 가벼이 하지 말라. ○靖康恥: (역자주)靖康은 북송의 마지막 황제 欽宗의 年號(1126-1127). 靖康2年 북송의 수도 汴京은 금나라 병사들에게 점령당했고, 徽宗과 欽宗 부자는 포로로 잡혀갔다. 난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한 흠종의 동생 高宗(재위 1127~1162)이 臨安(지금의 抗州)에 도읍하여 南宋을 재건하였는데, 이로부터 남송이 시작되었다. ○雪: 씻어내다. ○長車: 길게 늘어선 兵車. ○賀蘭山: 寧夏省 銀川市에 위치한 산으로 당시에는 西夏의 근거지였다. 여기서서는 적의 근거지를 가리킨다. ○胡虜: 침입한 적을 가리킨다. ○匈奴: 여기서서는 금나라 사람을 가리킨다. ○收拾: 여기서서는 수복, 재정비의 의미. ○天闕: 여기서서는 황제가 거처하는 곳, 즉 서울을 가리킨다.

六. 國民中學 《國文》 第六冊

1. 元曲選(一)

(一) 四塊玉(間適) — 關漢卿

舊酒沒,	묵은 술 다 마셔
新醅潑.	새로 술 빚었네.
老瓦盆邊笑呵呵,	술동이 옆에서 걸걸걸 웃으며
共山僧野叟閒吟和,	중과 늙은이 한가로이 읊조리네.
他出一對雞,	그가 닭 두 마리를 가져오고
我出一個鵝,	... 내가 거위 한 마리 가져와서

閒快活.

한가로이 즐기네.

○이 小令은 《太平樂府》중에서 선록하였다. 유유자적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묘사하였다. <四塊玉>은 曲牌名이고 “閒適”은 제목이다. ○關漢卿: 호는 己齋叟, 원대 大都(지금의 북경) 사람. 생졸년 未詳. 馬致遠·白樸·鄭光祖 등과 더불어 元曲四大家라고 부른다. 순박하고 자연스런 풍격의 작품을 주로 지었다. 저작으로 《救風塵》·《竇娥冤》 등 60여 종의 잡극이 있다. ○沒: 盡, 다하다. ○新醅: 새로 빚은 술. 醅(배), 새로 양조해서 아직 거르지 않은 술. ○老瓦盆: 老, 오래되다는 뜻. 瓦盆, 술을 담는 그릇. ○呵呵(가가): (역자주)겉겉웃는 소리. ○吟和: 시를 음창하다.

(二) 天淨沙(秋思) — 馬致遠

枯藤老樹昏鴉.

마른 덩굴, 고목, 까마귀.

小橋流水平沙.

작은 다리, 냇물, 모래밭.

古道西風瘦馬.

옛 길, 서풍, 여윈 말.

夕陽西下,

해는 서쪽으로 지는데

斷腸人在天涯.

타향에서 애끓는 사람.

○이 小令은 《東籬樂府》중에서 선록하였다. 스산하고 적막한 풍경을 빌어 나그네의 고통스런 비애의 감정을 드러내었다. <天淨沙>는 曲牌名이고 “秋思”는 제목이다. ○馬致遠: 호는 東籬이고, 원대 大都(지금의 북경) 사람. 생졸년 未詳. 난세에 포부를 펼칠 기회가 없어 잡곡을 지으며 심정을 달래었다. 호방한 작품을 주로 지었지만 한가롭고 평화로우며 청려하고 섬세한 풍격의 작품도 적지 않다. 저작으로는 산곡집 《東籬樂府》과 《漢宮秋》·《靑衫淚》 등 10여 종의 잡극이 있다. ○昏鴉: 해질 무렵 등지로 돌아가는 까마귀. ○古道: 오래되어서 손질하지 않은 황량하고 외진 길. ○斷腸人: 지극히 슬픈 사람을 비유. 여기서는 타향을 떠돌며 고향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나그네를 가리킨다. ○天涯: 하늘가, 여기서는 타향을 가리킨다.

2. 元曲選(二)

(一) 水仙子(詠江南) — 張養浩

一江煙水照晴嵐,	물안개 속에서 산안개 비치고
兩岸人家接畫檐。	양기슭 인가는 처마가 이어지고
芰荷叢一段秋光淡,	마름과 연꽃에 가을빛 담담하고
看沙鷗舞再三。	모래펄 날으는 갈매기 보이네.
捲香風十里珠簾。	바람 일어 주렴 걸으면
畫船兒天邊至,	그림배 하늘가에 이르고
酒旗兒風外颺。	주점 깃발 바람결에 흔들리는
愛殺江南。	강남이 너무도 좋아라.

○이 小令은 《雲莊樂府》중에서 선록하였다. 강남의 가을 풍경을 묘사하였다. <水仙子>는 曲牌名이고 "詠江南"은 제목이다. ○張養浩(世祖 至元六年, 1269-1329, 文宗 天曆二年): 자는 希孟, 호는 雲莊. 원대 濟南(지금의 山東省 濟南市) 사람. 성품이 강직하고 사욕이 없었으며 작품은 평이하고 진솔하다. 저서로 《歸田類稿》·《雲莊樂府》 등이 있다. ○芰(기): 마름. ○颺(짐): 바람결에 흔들리다. ○殺: '煞'(살)자와 통한다. 극히, 매우.

(二) 梧葉兒(春日書所見) — 張可久

薔薇徑,	오솔길의 장미
芍藥闌。	난간가의 작약
鶯燕語間關。	피꼬리와 체비 지저귀네.
新晴紫陌乾,	날 개어 시골길 마르고
日長繡窗閒。	해 길어 규방은 한가로와
人立秋千畫板。	사람은 그네 곁에 서있네.

○이 小令은 《小山樂府》중에서 선록하였다. 아름다운 봄 풍경을 묘사하였다. <梧葉兒>는 曲牌名이고 "春日書所見"은 제목이다. ○張可久(?-1368): 자가 小山. 원대 慶元(지금의 浙江省 鄞縣) 사람. 생졸년 未詳. 順帝 시기 생존. 만년에 杭州에

은거하였으며, 그는 경물 묘사에 뛰어났다. 저서로 《小山樂府》 등이 있다. ○關: '欄'자와 통한다. 여기서는 欄杆(혹은 關干, 난간)을 가리킨다. ○間關: 새의 울음소리. ○紫陌: 서울 근교의 길.

Ⅲ. 맺는 말

대만의 초급중학 국문에 실려있는 고전시가는 위의 작품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 학년 학기마다 시의 형식별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학년별로 絶句와 律詩, 古體詩와 樂府詩, 詞와 散曲 등이 차례로 안배되어 있다. 국문에 수록된 22수 작품의 시대로 살펴보면, 漢(1), 魏晉南北朝(2), 唐(10), 宋(4), 元(5) 등으로 나눌 수 있어 한의 古詩19수에서부터 원의 散曲에 이르는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古體詩로부터 근체시에 이르는 중국 시가 발전과정에 따른 구성이라기보다는 시의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당대 絶句와 律詩 즉 가장 세련된 문학양식으로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近體詩로부터 시작하고 있어 고전시의 전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만의 초급중학 국문은 중국문학 발전사에 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詩經》이나 남방문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楚辭》가 배제되었으며, 明代와 清代 詩詞 또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간가요에서 발전된 운문양식인 악부시 및 사와 산곡이 독립된 시의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국문 교과서의 이러한 고전시 수록은 현대시가 매 학기 1과에서 1수의 소개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고전시가는 매 2과에 걸쳐 4수씩 소개되고 있어 고전에 대한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초급중학 《語文》은 대만의 국문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수록하였다. 어문에 수록된 총 112수 중 고전시가 96수를 차지하는데, 시기별로는 《詩經》으로부터 청말을 거쳐 중화민국시기와 현대중국시기 시인들의 시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현대시로는 毛澤東의 長征에 얽힌 詩詞(7학년 2

학기, 9학년 1학기)와 ‘革命烈士詩’(8학년 1학기)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이와 같이 대만해협 양안의 교과서는 시가 수록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수록시가의 내용, 수록시가의 저작시기, 수록시가 수량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중국 대륙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지면을 통해 좀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參考文獻>

國立編譯館, 國立編譯館國民中學國文教科用書編審委員會, 國民中學國文教科書 《國文》, 第一冊 ~ 第六冊 총6冊, (제1책; 民國75年8月 正式本初版, 民國78年8月 改編本初版, 民國84年8月 改編本七版, 책마다 연도 약간 차이 있음), 國立編譯館
九年制義務教育課本, 《語文》七年級, 八年級, 九年級 각 第一學期 第二學期 총 6권, 上海教育出版社, 1995.6.

<中文提要>

臺灣的初級中學國文課程在三年、六個學期中, 每學期的課程都有編選詩, 每學年分別以絕句和律詩, 古體詩和樂府詩, 詞和散曲等的順序作課程安排. 收錄在國文課程的二十二首作品以朝代來分, 爲漢(1首)、魏晉南北朝(2首)、唐(10首)、宋(4首)、元(5首), 可看出從漢代的古詩十九首到元代散曲的變化過程.

值得注意的是, 臺灣的初級中學國文課程未編選中國文學發展史上現存最久遠的詩歌集《詩經》、南方文學起源《楚辭》、以及明清詩詞的作品, 反而編選了源自民間歌謠的韻文形式的樂府詩, 以及另成獨立的詩形式的詞與散曲. 較之臺灣, 中國大陸的初級中學《語文》教科書的編選方式與臺灣大相逕庭. 臺灣海峽兩岸的教科書在不同的政體下、不同的教育目的、所編選的詩歌內容、著作時期、數量、以及詩歌收錄方法皆有所不同.

關鍵詞：臺灣 中學 國文, 教材, 古典詩